

‘핫한’ 남북 경협주...주식 거래 ‘깡충’

광주·전남 4월 6억9296만주 거래...전달보다 35% 증가

개성공단 입주사·토목·건축 관심...‘가스관’ 테마주 동양철관 1위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도 지난달 남북 경제협력(경협) 관련 업체에 주목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주식 거래량은 6억 9296만주(35.06%) 늘었고 거래대금은 4조5576억원에서 5조5376억원으로 9800억원(21.5%)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특히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훈풍에 대한 지역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성공단 입주사, 토목·건축 등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 등 주요 ‘경협주’로 평가받는 업체에 대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강력 생산기업인 동양철관의 경우 남북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주로 얽히며 지난달

1995만주까지 거래되며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으로 꼽혔다.

동양철관은 지난 3월 952만주가 거래되면서 ‘거래실적 상위 10종목’ 중 순식간에 3위에 오르더니 지난달 1위로 올라섰다. 현대상선도 지난달 1638만주가 거래되면서 거래량 2위에 올랐고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도 986억4100만원 어치가 거래되며 거래대금으로 10위(9위) 안에 포함됐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진출했던 패션 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신원도 793만주가 거래되며 거래량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도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대북 송전업체로 대표적 경협주로 꼽히는 이화전기는 3월 3603만주, 지난

■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 주식거래실적 상위 10종목

(2018년 04월·단위:만주)

□유가증권

순위	종목명	거래량
1	동양철관	1,995
2	현대상선	1,638
3	금호타이어	1,410
4	보락	1,380
5	인스코비	1,365
6	필룩스	1,342
7	일신석재	1,175
8	홍아해운	888
9	파미셀	842
10	신원	793

□코스닥

순위	종목명	거래량
1	이화전기	6,818
2	코디엠	4,016
3	에스맥	3,828
4	KD건설	2,439
5	케이피엠테크	2,387
6	우리기술	1,477
7	대아티아이	1,322
8	재영솔루텍	1,190
9	슬고바이오	1,183
10	이에스브이	1,135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제공〉

달 6818만주가 거래되면서 지역 투자자들 간 거래종목이 가장 많은 종목에 올랐다.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사업분야의 코스닥기업인 대아티아이도 3월 818만주가 거래되며 상위권에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거래량이 1322만주까지 치솟으며 거래량 7위에 포함됐다.

개성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재영솔루텍도 지난달 1190만주가 거래되며 처음 거래량 상위 종목에 올랐다.

경협주로 꼽히는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도 거래대금(754억8200만원·9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대비 거래량은 1.99%, 거래대금은 1.71%로 집계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은행, 어린이 2700명 초청 ‘문화 나눔’ 뮤지컬 공연 무료 관람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제4회 메세나 나눔행사 ‘고추장 떡볶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 되었다고 밝혔다.

제4회 메세나 나눔행사 ‘고추장 떡볶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은 4일부터 6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연 3일 동안 약 2700여명이 넘는 지역민과 어린이들이 무료로 관람했다.

‘고추장 떡볶이’ 공연은 높은 완성도와 재미로 대학로 극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이다. 광주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뜻깊은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본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기관 어린이들을 공연에 초대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은행장이 마련한 ‘고추장떡볶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전 어린이들이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타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非방산만 더블스타 매각...전투기 부문 분리 매각 추진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지정취소 뒤 금호

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

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해 방산업체로 지정돼있다. 연간 타이어 생산량은 5000본(매출액 16억원) 규모로, 현행 방위사업법(제 35조)은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 유치가 따라 방산물자 공급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취소 사유에 반영됐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非)방산 부문과 분리해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방위사업청과 협의, 취소 여부를 6월께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49.81 (-11.57)
- ↑ 금리 (국고채 3년) 2.31% (+0.03)
- ↓ 코스닥 827.22 (-29.12)
- ↓ 환율 (USD) 1076.50원 (-0.70)

광주 주택시장 ‘나홀로 상승’

타 지자체 하락에도 매월 오름세...전세가격도 동반 상승

광주지역 주택 시장이 수도권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이 오르고 주택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각종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문제철 과장과 배준형 조사역은 8일 ‘광주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특징’ 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 주택시장의 현황,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광주 주택가격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5년 큰 폭으로 올랐다가 2016년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지난 2010년~2013년까지 20.1%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4.6%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광주지역은 오히려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들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의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결과, ▲1월 0.15% ▲2월 0.16% ▲3월 0.23% ▲4월 0.21% 등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지방 아파트값이 올 1월(-0.05%), 2월(-0.04%), 3월(-0.04%), 4월(-0.06%) 등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 전세가격도 2017년 12월 이후 수도권과 여타 광역시는 하락하고 있으나 광주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들은 광주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 세대수 증가와 빚가림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높은 자가 거주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연준 정책금리 인상 등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2016년 8월 이후 상승으로 전환해 2018년 3월 3.45%를 기록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상승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주택시장 가격 변동이 고위험 가구와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벤츠, 4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4월 수입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4개월 연속으로 판매 1위를 지켰다. ‘다젤 게이트’ 이후 2년여간 중단됐던 판매를 최근 재개한 아우디는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고, 최다판매 모델도 배출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달 총 7349대를 팔아 BMW(6573대)를 큰 차이로 제치고 브랜드별 등록 대수 기준 1위에 올랐다.

벤츠 판매량은 같은 달 르노삼성(6903대), 한국GM(5378대)의 내수 실적을 웃돈다. BMW도 한국GM보다 1000대 이상 많이 팔렸다.

4월 수입차 판매 3위는 아우디(2165대)가 차지했다. 지난 3월 말 주력 차종인 A6 신형을 내놓고 영업을 재개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도요타(1709대), 포드(154대), 랜드로버(911대), 렉서스(872대), 가 뒤를 이었으며 아우디와 함께 시장에 복귀한 폭스

바겐은 809대를 팔아 9위에 머물렀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아우디 A6 35 TDI(1405대)가 차지했다.

아우디의 영업 재개 전까지 베스트셀링 모델 자리를 놓고 었지라뒤처라했던 BMW 520d(1357대)와 벤츠 E 200(1257대)은 2, 3위로 밀려났다.

지난달 신규등록된 수입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3% 증가한 총 2만5923대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최대 판매량(2만6402대)을 달성한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5000대를 넘어선 것이다.

1~4월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총 9만 3328대로 작년 동기 대비 24.4%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은 처음으로 2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연료별 등록 대수를 보면 디젤차 점유율(50.0%)이 가솔린차(41.5%)를 앞섰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 송정역·광주역·목포역

역사내 광고주모집

광고 PREMIUM

-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후 이용객 급증
- ✓ 송정시장
- ✓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이용객 증가추이 (단위: 만)

역명	2015년	2017년
광주송정역	3,998,000	6,908,000
목포역	1,773,000	2,271,000

공식대행사 나코스(유) 010-8822-5425 062-376-5420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대폭 완화에 필요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정부지원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